“비리유치원 걱정? 여기선 남말”

한마음유치원, 2018 교육활동 우수 유치원 표창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얼마 전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사립유치원을 향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높다. 이런 가운데 2017년 개원해 3년차에 접어든 신생 사립유치원인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유치원(대표 스님 혜운)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18년 교육활동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돼 부산교육감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끈다.

또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유치원 평가에서 유아 인성과 심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교육, 교사의 업무 지원과 복지 분야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고 A등급 유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한마음유치원 김은영 교사는 유아 교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교육 관계자들도 놀라는 이 같은 성과는 유치원의 설립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면서 기본을 지켜왔기에 가능했다. ‘어릴 때부터 마음도리를 알게 해서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을 길러내라’ 는 대행 선사의 뜻을 유아 교육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현하고자 한 결과다.

어떤 교육을 하는 걸까? 유치원 관계자는 “어른들이라면 잘 하지 않겠지만 유아기엔 꼭 필요한 것을 한다”고 했다. 봄이 오면 꽃피는 것을 보고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며 산책한다. 가을이 오면 유치원 옆에 우뚝 선 태산목에서 떨어진 잎으로 배를 만들어 연못에 띄운다. 한마음유치원은 산과 바다라는 자연환경에 더해 바깥 놀이터가 3개다. 복합놀이기구 놀이터, 흙산 놀이터, 산책로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맘껏 놀면서 오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한다고.

명상활동과 놀이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해소하는 경험을 한다. 유아기에 필요한 것이 결핍되면 성인이 돼서도 결핍을 겪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누리 교육과정이나 유아 연령에 꼭 필요한 교구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음유치원은 2017년 개원한 신생유치원이지만 부산서 교육활동 우수유치원으로 꼽힌다. 사진은 원생들이 대근육 활동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3년차 접어든 신생유치원
부산교육감 표창에 ‘눈길’
교사 · 학부모 교육이 성과
“기본 지켰기에 가능한 일”

그러나 한마음유치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환경이나 교구가 아니다. 그 모든 환경과 교구를 활용하는 사람, 바로 교사다.

혜운 스님은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교사 협의 시간을 갖고 교육 주제에 대한 공유와 협의, 평가, 개선의 과정을 반복한다. 교사 명상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마음공부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방학 때마다 1박2일 연수로 내적 성장의 시간도 보낸다. 국공립 교사와 같은 월급과 한 반에 2명의 교사가 배치되는 등 사립유치원에서는 보기 드물게 근무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들은 자기 계발과 내적 성장에 부지런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쏟는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한마음유치원의 장점 또 하나는 학부모 교육이다. 유치원 교육의 완성은 가정에서 이뤄지기에 학부모와 유치원은 교육에 뜻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월 한 차례 유치원 자체 프로그램인 ‘부모 마음공부 학교’ 를 열고 지속적으로 ‘자율형 마음공부 학교’ 를 개설해 희망 학부모들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 초청 부모 교육으로 유아 연령별 이해와 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누리 과정과 함께 인성 교육으로 진행하는 명상 활동을 부모들도 체험한다. 학부모들은 이런 다양한 부모 교육 활동을 통해 자녀의 교육 활동을 인지하고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성장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 나간다.

역량을 갖춘 교사와 교육에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 최적의 환경이 빚어낸 한마음유치원의 원생들은 어떨까? 여러 유치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외부 강사진들은 “집중력과 신체 조절 능력이 월등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술관, 과학관 등에 견학을 가면 한마음유치원 원생들은 더욱 빛을 발한다. “어느 유치원이냐?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놀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차분하고 집중을 잘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혜운 스님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유아들은 따뜻한 사람의 에너지를 받고 자란다. 유아기에 꼭 필요한 그 마음 에너지를 유아들에게 주고자 유치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쓴다”며 “유아, 교사, 부모 모두가 성장하며 스스로 갖춰진 내면의 에너지를 기르고 정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마음유치원은 매일 아침 교사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마음 에너지로 아이들을 키우겠다’ 는 발원을 하는 조회로 하루를 연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있어 2018년 교육활동 우수유치원이 됐고, 2019학년도에는 125명의 원생들이 마음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길고양이 공존 위한 ‘캣통’ 부산에

(사)동물복지위원회, 기장군에 부산센터 개관

“사람과 동물, 문화와 동물, 사람과 사람을 잇다!”

새로운 동물문화네트워크 공간 캣통(Cattong)이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동물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보혜)는 2월 16일 동물문화네트워크 캣통(Cattong) 부산센터를 기장군에 개관했다.



사단법인 동물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6일 동물문화네트워크 캣통(Cattong)부산센터를 기장군에 개관했다.

(사)동물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산하기관으로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를 위한 동물문화네트워크 공간이다. 캣통은 동물복지 정책 수립에 앞장서며 민관 협력사업 활동(TNR사업, 급식소 설치 등)과 지역 캣맘 및 동물보호활동가를 지원한다. 특히 친(親)동물문화 형성을 위한 동물문화페스티벌을 열고 캣문화예술을 위한 갤러리, 공예, 책, 사진, 세미나 등 활동을 펼친다.

개관식에서는 고양이 작가로 불리는 김하연 작가의 ‘구사일생’ , 이지은 작가의 ‘신묘’ , 아롱 작가의 ‘너와 나의 거리’ 등 미니 작가전(展)이 열렸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 캣통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아름답게 풀어내기 위한 장소”라며 “부처님의 자비 사상으로 생명을 위한 평화로운 공간으로 회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캣통은 생명사랑에 함께 동참할 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atto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 살리는 최후 보루 ‘베이비 박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첫 미래세대 행복정책 토론회

#지난해 경기도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유기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 신생아의 10대 산모는 사산아를 주장했지만 폐호흡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구의 한 하수구에서는 신생아가 버려져 숨졌다. 영아 살해혐의로 구속된 김모(37) 씨는 성폭행 당한 뒤 임신한 여아를 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아기 유기는 범죄다. 버려진 생명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생명 보호와 아이 인권 그리고 산모의 행복권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는 2월 20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제1회 미래세대 행복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는 1차 심사에 통과한 부산대 학생 5개 팀이 참여, 토론 주제에 맞춰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는 영유아 유기 현황을 분석, 베이비박스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찬반 입장을 펼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참가팀 가운데 박소현 · 박정원 학생은 “베이비박스는 양육이 불가능한 영유아의 안위 사이에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재 낙태 불가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마저 힘든 상황이라 부모의 출산 선택권을 국가가 박탈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밀출산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비밀출산제는 친모가 병원에서 비밀출산기관에 통지해 아이를 비밀출산 할 것을 알리면, 기관에서 아이의 후견인이 되고 출생을 신고해 입양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는 성장 후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심혜량 · 류병구 학생은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비밀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 이희숙 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은 “앞으로 아기와 산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동참해 달라”며 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미래세대 행복정책 토론회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와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미래세대들이 참여 토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다양한 사회 이슈를 세대 간 소통으로 해결책을 찾는 ‘소통의 플랫폼’ 으로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이사장 정각 스님, 상임이사 심산 스님과 패널 및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주 수현불교대학 제1회 졸업생 배출

총 57명 2월 17일 졸업

2017년 전주 혁신도시에 개원한 전법도량 수현사 수현불교대학(학장 성우)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수현불교대학은 2월 17일 전법도량 수현사 2층 강의실에서 제1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5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수현불교대학 졸업식에는 성우 스님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졸업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첫 번째 졸업을 축하했다.

성우 스님은 “전주의 혁신도시 전법도량에 수현불교대학이 문을 열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현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전법활동을 하면서 모든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정희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을 수상했으며, 박영진 불자 등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숯보료Q : W 15300 × D 2030 × H
숯보료SS : W 1000 × D 2000 × H 90
취급 품목
◆숯침대
◆숯카우치
◆좌훈기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